

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드는 미래

7월 7일 도농교류의 날

7월 7일에
도농교류의 날
기념행사가 열린다!

도농이
뭐예요?



도농교류의 날?



도농교류의 날은 2013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예요.

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(도농교류법)’에
근거해서 만들어졌고 매년 7월 7일에 기념하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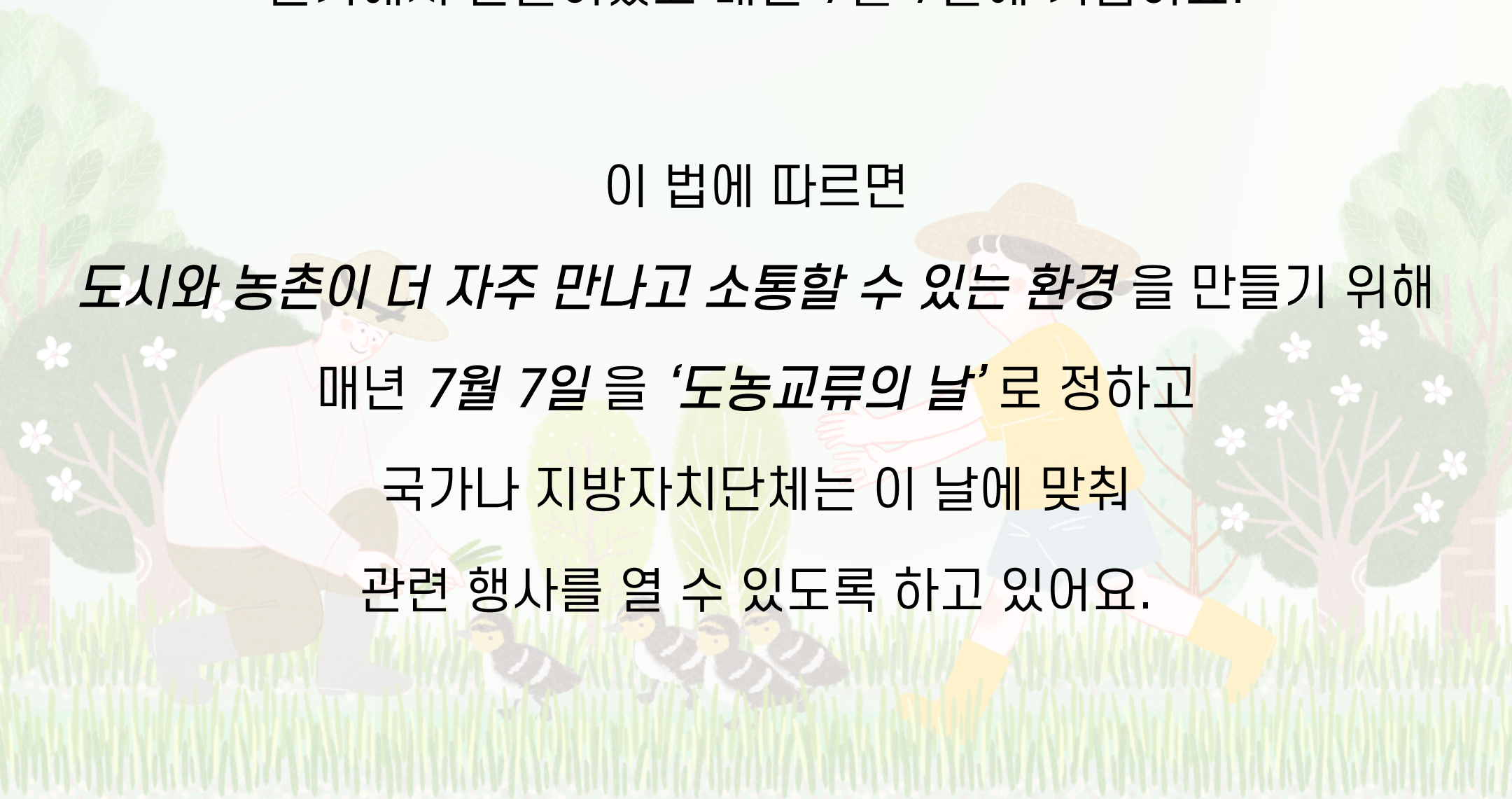
이 법에 따르면

도시와 농촌이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

매년 7월 7일을 **‘도농교류의 날’**로 정하고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에 맞춰

관련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.





그런데 왜 하필 7월 7일일까요?



그건 바로 칠석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이에요.

음력 7월 7일,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
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처럼
도시와 농촌도 서로 다리를 놓고 만나자는
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.

그래서 도농교류의 날에는
도시민과 농촌 주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고
하나 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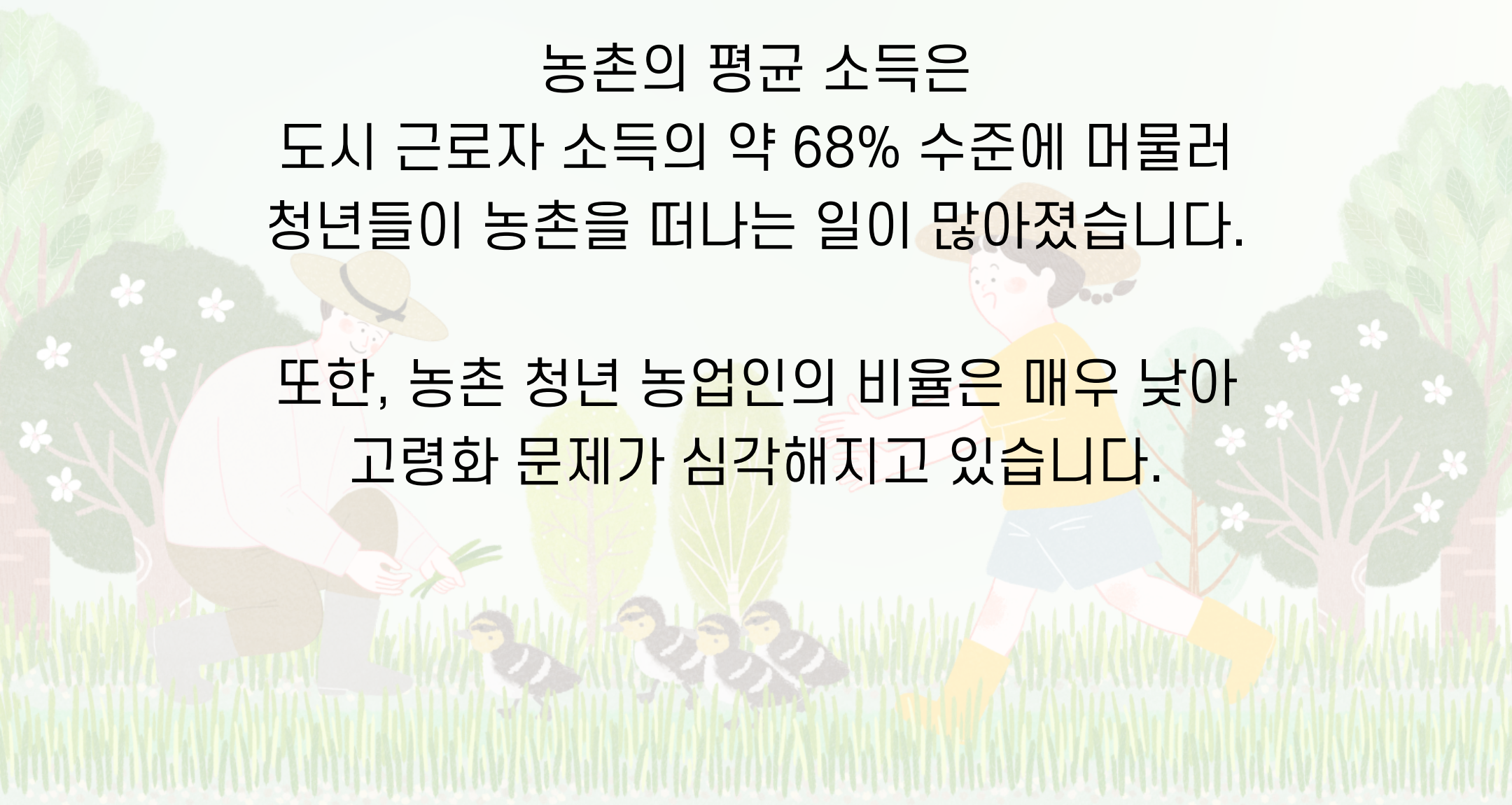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부도
매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
축제와 시상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.

왜 도농교류가 꼭 필요할까요? (1)

지난 20년간 농촌 인구가 22.6%나 감소하면서
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

농촌의 평균 소득은
도시 근로자 소득의 약 68% 수준에 머물러
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.

또한, 농촌 청년 농업인의 비율은 매우 낮아
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



왜 도농교류가 꼭 필요할까요? (2)

농촌 지역은 응급 의료기관이 부족해

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

학교도 통폐합이 계속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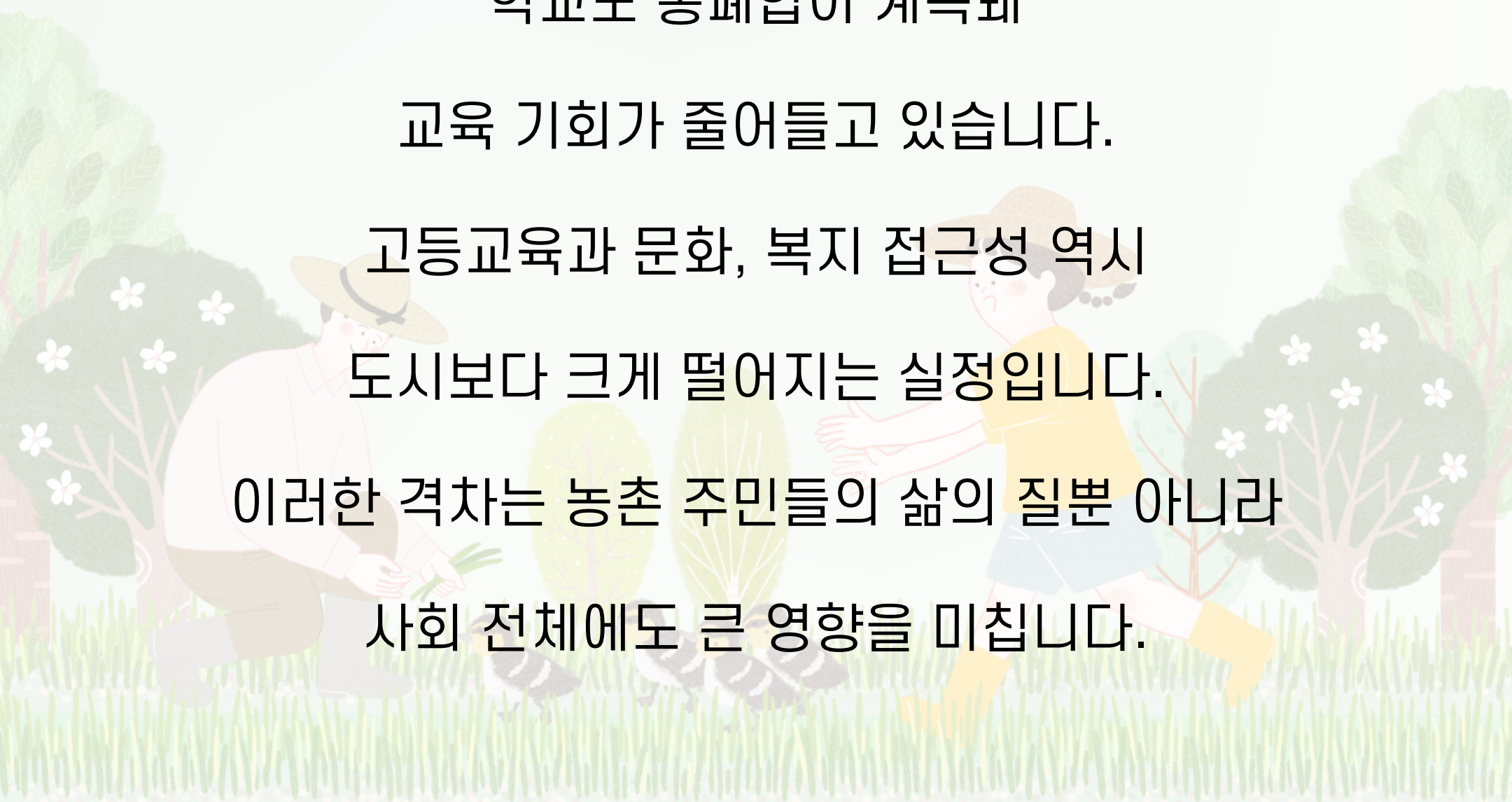
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

고등교육과 문화, 복지 접근성 역시

도시보다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.

이러한 격차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뿐 아니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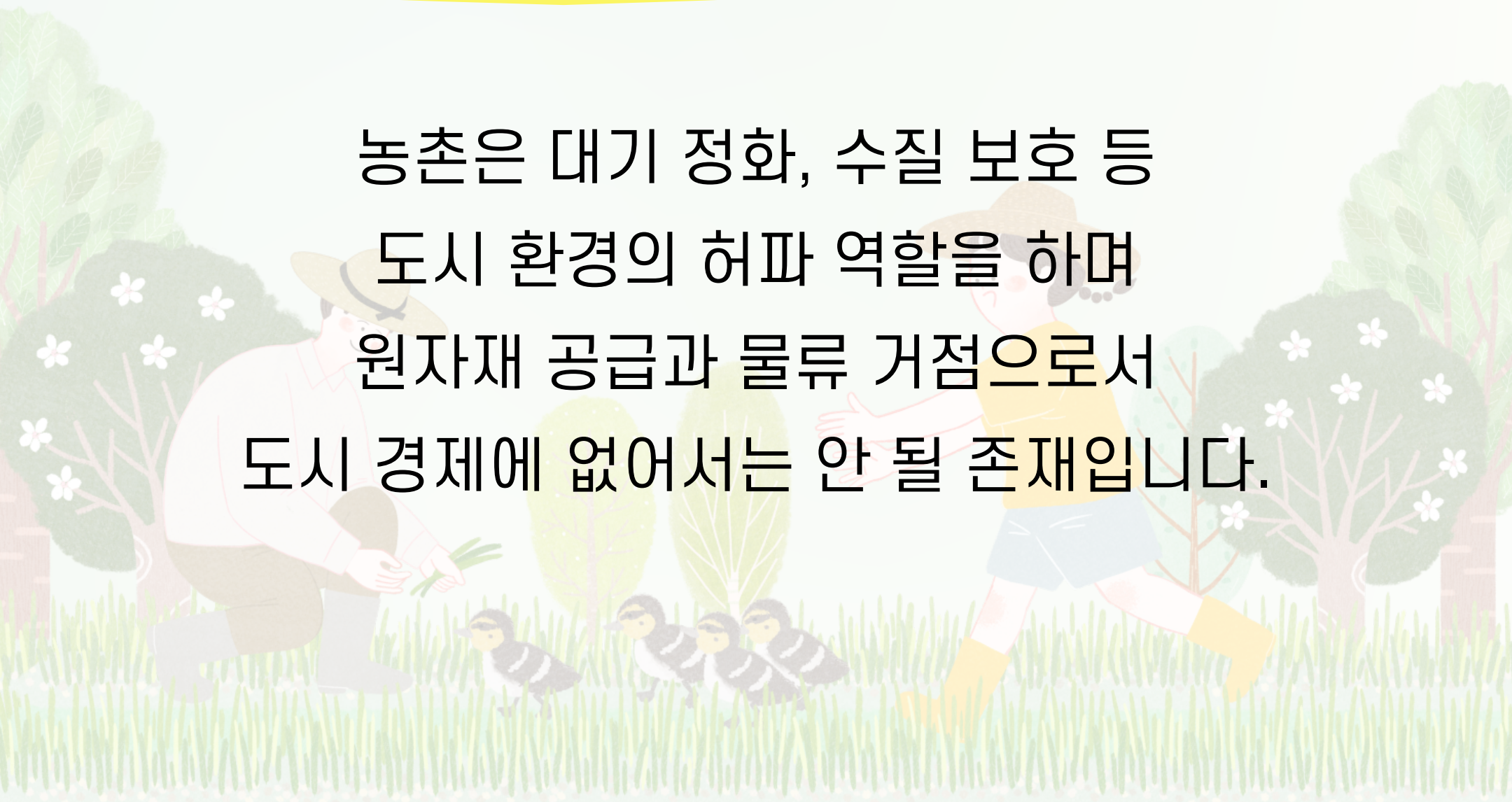
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

농촌 없이 지속될 수 없는 도시

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6.2%로
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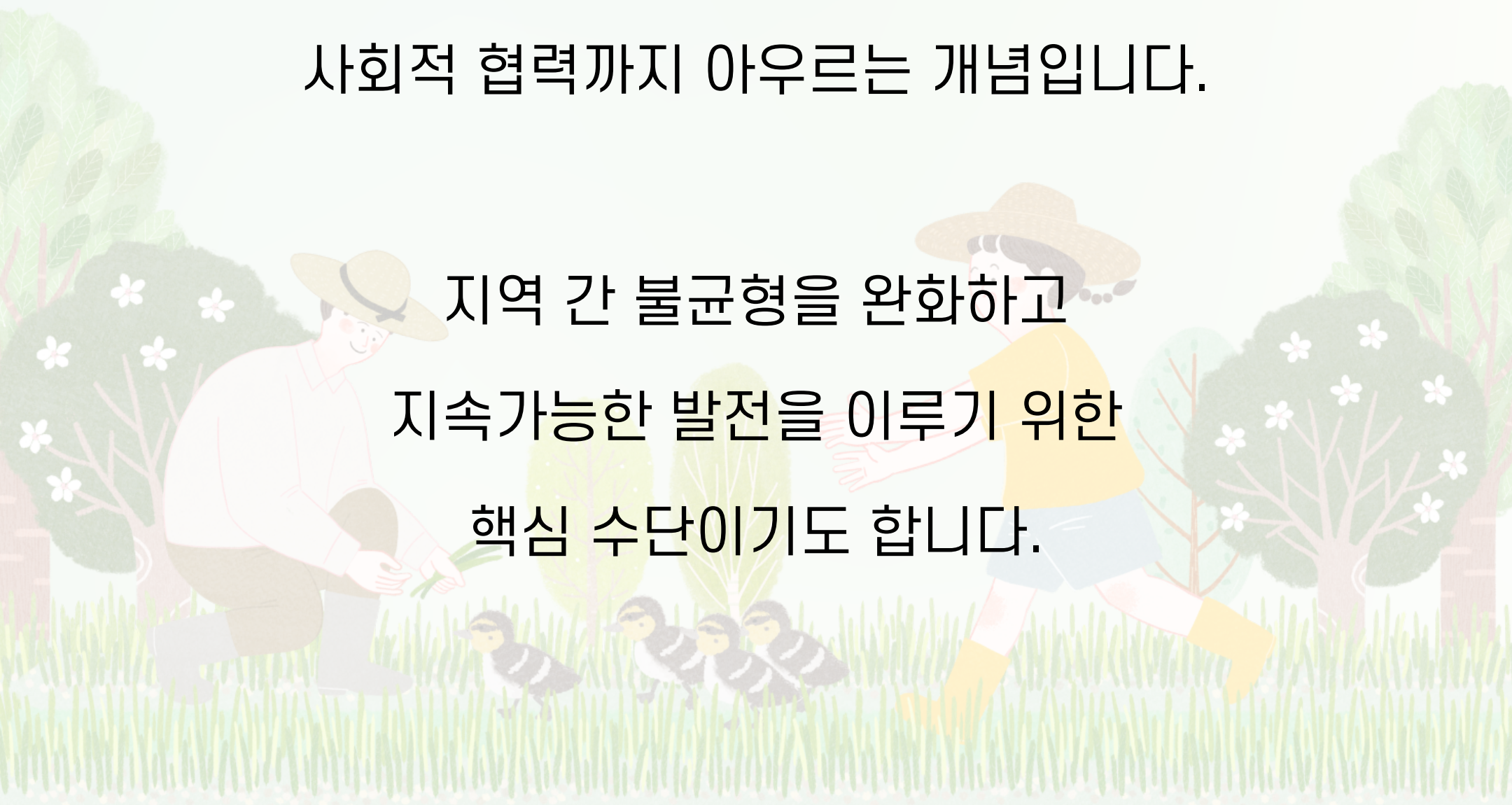
농촌은 대기 정화, 수질 보호 등
도시 환경의 허파 역할을 하며
원자재 공급과 물류 거점으로서
도시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.



도농교류, 그 이상의 의미

도농교류는 단순한 농산물 직거래를 넘어
지역 간 문화와 정보 교류, 공동체 회복,
사회적 협력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.

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
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
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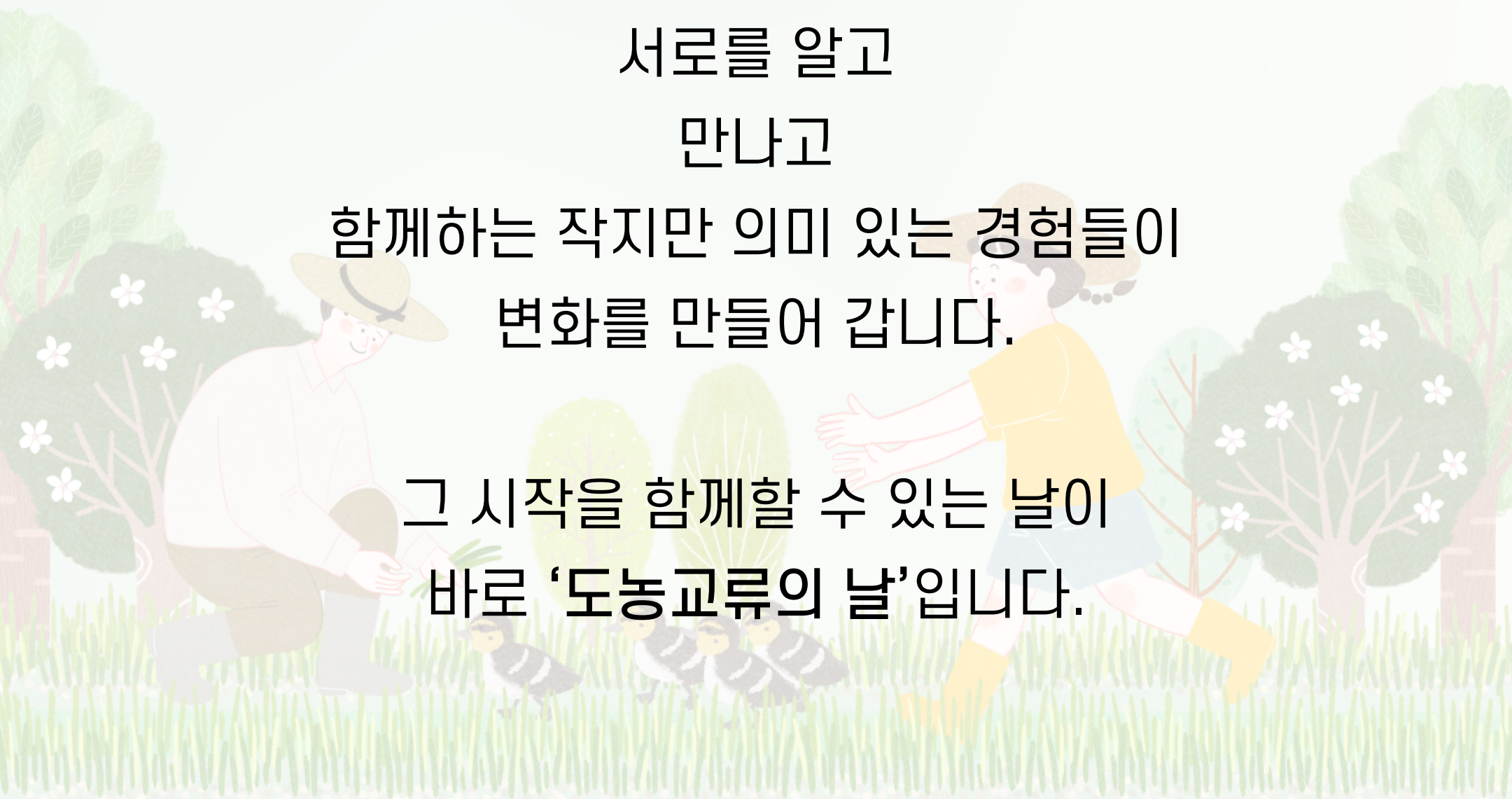
도농교류, 멀게만 느껴지시나요?

도시와 농촌의 연결이
꼭 거창하고 어려운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.

서로를 알고
만나고

함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경험들이
변화를 만들어 갑니다.

그 시작을 함께할 수 있는 날이
바로 ‘도농교류의 날’입니다.



2025 도농교류의 날 행사 안내

장소 :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

일정 : 2025년 7월 4일(금) ~ 5일(토)

프로그램

도농교류 기념식

농촌여행 체험존 운영

전국 9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

감물염색, 텃밭 케이크 만들기 등 전통 체험

민속극, 태권도 시범, 대취타 공연 등 문화행사

출처 및 참고자료

농림축산식품부 식량 자급률 보고서(2023)

서울시 환경보고서(2022)

농촌진흥청 환경관리 자료(2023)

교육부 및 지역 교육청 자료(2023)

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(2025년 7월 1일)

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농촌·도시 인구통계(2023)

통계청 「2024 농가경제조사」

농촌진흥청 「농촌 고령화 실태조사 2024」

보건복지부 「지역 의료격차 보고서 2023」